

문화광장



변명선 화가

누군가 위로가 되어주는 대부분의 예술가는 모두들 가난하다. 마치 일반인과 삼성 이견의 부자 인생과는 아무런 관계없듯 잘 나가는 화가의 그림 값과 나는 늘 별개의 인생이다. 하지만 창작을 놓지 않고 쉬지 않고 작업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꾼다. 분명 풍요롭게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늘 아이디어 그리고 시간과 비용과 재능을 기부해야 한다고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따돌리는 노동도 무가치하고 예술은 더욱 몰가치한 시대, 우리는 그런 제주

탁상을 박차고 나가, 봄!

에 살고 있다.
긴자의 건물은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건물의 핵심적인 위치에 전시장을 마련한다. 그에 그치지 않고 젊은 예술가를 후원하면서 기획 지원한다. 그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가 건물주의 또 다른 자본투자가 되는 구조다. 그것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긴 자라는 동경의 시가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환경은 자본가의 욕망에 기대는 기관의 행태를 목격하게 될 뿐이다.
교육기관은 공문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근거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다. 투명하고 훌륭한 제도 있다. 하지만 권력 없는 일반인을 대하는 교육기관의 자세는 어떠한가. 전시행사하기 전까지 메일 한 장 없이 한통의 전화가 전부였던 전시를 진행했다. 3·1절 기념 제주교육청 제주도서관에서 진행된 법정사동이 동화 그림전시, 필자의 그

림을 전시하면서 드는 생각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의구심이 든다.
행사 소식도 없이 현수막 그림은 작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걸었다. 그려놓고 행사 잘했다 자찬한다. 도서관은 저서 외에 영상물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강그리 모른다 하더라도 일을 진행하기 전 작가에게 허락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인 예조차 저버린 교육기관, 오로지 탁상행정, 염치없음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인가. 한사람 건너면 다 아는 좁은 지역이니 그냥 넘어갔던가. 작은 변화가 안되는데 무슨 창의교육과 미래인재를 운운하는가.
우리는 변화를 희망하며 무릎 꿇을 일이며 아이들을 기웠다. 형편 따라 그중 최고의 것을 선택했고 자녀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전해주려 애썼다. 평권이하의 규칙 규정, 판에 박은 학교생활을 잘 이겨냈다. 그러

거나 말거나 세상은 변했고, 아이들은 진화했다. 영상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지로 기억을 한다. 감수성으로 공감하며 기억한다. 감동 없는 고답한 방식으로는 통용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극에만 동하는 듯 보이지만, 매력의 유무를 여러 각도로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인 세대로 변모했다. 시민들의 감성의 면모는 스펙트럼은 넓고 깊어졌다.
하지만 우리 기관의 수준은 한참 낮다. '공짜전시'를 유지하면 '능력'이라며 칭찬해 주는 제주교육사회 울드함을 넘어 이상하기까지 하다. 탁상행정으로 보기에 그저 작품을 가져다 놓으면 전시라고 생각이 되는가. 그저 행사를 끝냈으니 대단히 뿌듯하였는가. 와서 전시해 주면 작가, 네가 영광이라는 사고방식, 정말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그 탁상을 치울 생각을 진정 없애보이는 심란한 봄이다.

열린마당

저소득층 의료문제, 의료급여제도 활용하세요



김현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당뇨병은 소아, 청소년기부터 운동 부족과 영양 과잉으로 발생하며 평소 혈당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눈, 신장,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중증난치·희귀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 말 제주시 국민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만3845명에 대해 진찰과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간호비 등으로 638억원이 지원 되

었으며 이외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금급여 지원사업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 검사지와 주사바늘 등 구입비를 매월 최대 7만5000원, 복막투석 환자의 경우 복막관류액 등 소모성 재료비를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하며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대여비 등도 지원되고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향후 석 달은 특위와 내부 전문가 합동 집중 조사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의원들은 오전에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합동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
표성준 기자

뉴스-in

“의원들 오전 상임위, 오후 합동근무 실시”

도의회특위 석달간 집중 운영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대규모발사사업에 대한 집중 조사기간을 운영하고 조사요원 합동근무를 추진.

특위는 23일 제3차 업무 연찬회를 개최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22개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전략과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논의.
이상봉 위원장은 "향후 석 달은 특위와 내부 전문가 합동 집중 조사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의원들은 오전에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합동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

“추제현장 안전에 유의하겠다”

○...서귀포시는 22일 안전정책실 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주말 열린 제24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와 내달 초 제2회 서귀포 은갈치축제"의 안전사항을 심의.
심의에선 고사리 채취객의 길

잃은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호루라기 배부와 건조기 산불예방 대책을, 은갈치축제는 해녀대와 수영대회 진행중 안전사고 시 즉각적인 대처에 중점.
시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현장에 대한 사전점검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IB, 폭넓은 의견수렴을”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토론·논술형 교육과정 '국제 바칼로레아(IB)'의 한국 어화 추진이 확정된 가운데 시범학교 선정 등 후속조치에 관심.
이런 가운데 이 교육감은 22일 열린 주간 기획조정회의에서 "처음 가는 길이기 많은 의견과 전망들이 있을 것"이라며 "열린 구조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후속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언급.
더불어 "IB 한국어화" 확정은 국제학교 과정을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
오은지기자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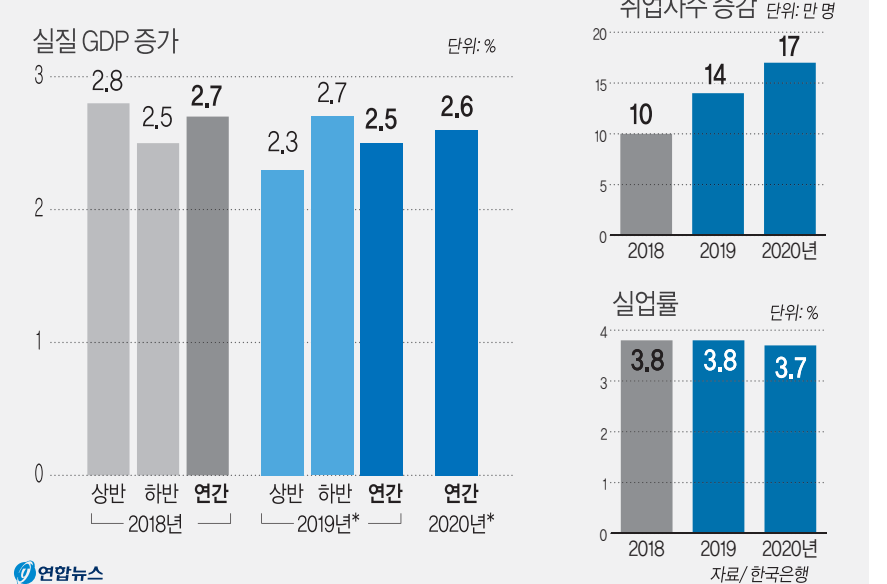
예래단지 정상화 기미 안보여 안타깝다

서귀포시 예래휴양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009년부터 2조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2017년에 완공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결로 그해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결 후 4년이 흘렀지만 법정공방이 되풀이 되면서 예래단지의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엇그제 법원이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수천억원대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지난 18일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 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은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간과한 채 인가처분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 "특히 예래단지 사업 당시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유원지 여부를 나누는 규정도 없어 해석이 엇갈릴 수 있

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유원지 규정이 애매하다'는 판단은 2015년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자야-JDC 소송은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료 등을 놓고 2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전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종 법정싸움으로 얽히고 설켜면서 사실상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예래단지 사업장은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로 사실상 폐허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에 유치한 대규모 외국인 등으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초라한 몰골로 남은 겁니다. 소송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예래단지는 수려한 해양경관마저 해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에도 JDC의 신입 문대립 이사장이 지난달 취임 이후 토지주 등을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 정상화를 강조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래단지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예래단지를 흉물로 방치할 겁니다.

그래픽 뉴스

한국은행 주요 경제 전망



‘2019 전도학생 호 생활 실천 글짓기 대회’ 개최 알림

Advertisement for the 2019 Provincial Student Good Living Practice Essay Competition.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mpetition, priz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Advertisement for Starkey Grand Promotion. Features a photo of a representative and details about a 23rd anniversary special event with significant discounts on Starkey products.

Advertisement for Ferkabio fertilizer. Promotes the benefits of Ferkabio for crop growth and soil health, highlighting its long history and effectiveness.